광주·전남 정치권 오늘 대선 출정식…오는 22일 열전 돌입

민주당, 5·18민주광장, 순천서 선대위 출정
국힘, 선대위 발대식 후 12일부터 선거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도 선대위 출정식을 통해 22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12일 각각 광주와 순천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6월3일 투표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광주시당은 1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선대위 구성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핵심 당원 및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 시작을 알린다.

광주시당은 지난 8일 '진짜 대한민국 광주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광주시당은 선거운동 기간 대규모 집중유세를 지양하고, 시민 한명 한명 만나는식의 밀착형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당 선대위와 6개 지역위원회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등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선거운동에 나선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오전 10시 순천 아랫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과 함께 첫 거리유세를 시작한다.

전남도당은 지난 3일 '용광로·포용·경청'을 기조로 내세우며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선대위에는 지방의원, 핵심 당원, 교육계, 종교계, 농어민, 시민사회 등 인사 85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남도당은 전남 투표율 85%, 득표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한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후보가 11일 공식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함에 따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12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8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승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난 10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0일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다짐했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 전반을 주도한다. 광주시당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주요 거점에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이날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며, 12일 별도의 출정식 없이 100여 명이 전남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의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민주노동당은 12일 오후 1시30분 5·18민주광장에서 권영국 대선 후보 광주·전남권역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

민주노동당 출정식에는 녹색당 광주시당,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참여한다.

서선옥기자

민주 "검찰, 친윤 몰락하자 김건희 소환 통보…당장 포토라인 세워야"

"보여주기식 소환 아닌 철저한 수사로 의지 증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데 대해 "철저한 수사만이 정치검찰의 죗값을 조금이라도 더는 책임 있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당장 김건희를 포토 라인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한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친윤이 몰락하자마자 검찰은 득달같이 김건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검사 위에 여사' 이던 검찰의 시절이 마침내 끝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정치 검찰의 발 빠른 태세 전환이 놀랍다"며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아깝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뭉그적거리더니 이제야 소환조사에 나선 검찰에 대해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조사, 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소환이 아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수사 의지를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명태균, 건진법사, 삼부토건 등 덮고 있던 사건들이 모두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은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민주 국민화합위 정책협약식…李 "위대한 민주당 역사 이을 것"

이 후보 직속 국민화합위 발족…"지역에서부터 힘 모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중심으로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에서 묵묵히 민주당을 지켜오신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광장과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들"이라며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해보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했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토대를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난도 잘 이겨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했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국민화합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국민 연금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의제로 한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 · 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